

이용객 급감 유·스퀘어... 터미널 용도 복합화 등 자구책 강구

금호고속 "효율적 운영 위해 불가피"
청주고속터미널 등도 복합 개발
타 지역 벤치마킹·부지축소 검토



광주종합터미널 유·스퀘어 전경.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이 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한 광주종합터미널(유·스퀘어)의 부지면적 축소를 추진하는 등 자구책에 나섰다.

버스 이용객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버스터미널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터미널 용도를 복합화하는 추세여서 유·스퀘어 역시 '구조 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광주종합터미널에 따르면, 1992년 개장 당시 일 평균 이용객 4만7000명이 지난해에는 1만명(9996명)에 못 미치는 등 5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19 여파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종합터미널은 30년 전 일 평균 이용객 최대 9만

5000명을 예상하고 건설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용객이 10분 1에 불과했다.

금호고속은 광주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하루 평균 운행 횟수를 830회로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하루 평균 운행 횟수 1436회와 비교하면 42%가 감소한 것이다.

광주종합터미널의 출발 횟도

50여개에서 32개로 20여개 줄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광주종합터미널의 부지 면적은 10만1150㎡(약 3만597평)인데, 이용객이 개장 당시와 비교해 5분 1가량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 부지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를 축소하고 있

는 다른 지역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한편 멀리앉아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청주고속터미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3만9359㎡에서 1만2673㎡로 3분 1가량 축소해 49층 상업시설 1동과 45층 아파트 2동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하고 있다.

서울 상봉시의터미널도 터미널 부지를 2만8526㎡에서 1569㎡로 대폭 줄이고 터미널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지상 49층 규모의 5개 동으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종합터미널 관계자는 "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19 여파에다가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행태가 변화되면서 승객수가 정상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객 수가 30년 전과 비교해 급감한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천 와인 페스타' 내달 개최

제10회 영천 와인 페스타가 오는 10월 1~2일 영천강변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키워드는 재즈, 한우, 그리고 와인이다. 영천시(시장 최기문) 지역 10여 개의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50여 종의 와인을 마음껏 시음하고 대폭 세일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영천 와인 한마당은 기본이고 오후 시간에는 강변공원의 흘러가는 강물과 석양을 배경으로 재즈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006년 처음 개최한 영천 와인 페스타는 해를 거듭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가 되는 특색 있는 축제로 농업·농촌자원의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여주시

정기분 재산세 426억 부과

여주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전액을 부과했다.

/여주(전남)=김용학 기자 jiiacecom@

산청군

'푸른경남상' 2년 연속 수상

산청군은 경남도가 시상하는 '제22회 푸른경남상'에 예술공동체 큰들과 산청군 오부면 청우회가 선정됐다.

산청군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예담촌'의 남사마을이 푸른경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로써 산청군은 푸른경남상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푸른경남상은 경남도가 푸른경남을 가꾸는 데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시군의 단체나 개인 등에 주는 상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밀양시

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인기'

밀양시의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혈압계·혈당기 무료 대여사업'이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혈압계·혈당기 대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 1258명, 2021년 2175명, 올해 8월 말 1712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고창군, 갯벌보전본부 유치 '총력'

김관영 전북지사 만나 협력 논의

고창군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 심덕섭 군수는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전략에 대해 13일 논의했다. 지난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2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유치 신청서 접수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며 "광역지자체가 신청 주체인 만큼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더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적 접근으로 유치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고창군과 상호협력해 반드시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침체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세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활동을 펴고 있는 심 군수님과 고창군민들께 격려와 응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왼쪽),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창군

고창 갯벌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효율적 관리의 측면과 함께 사업 대상부지를 포함해 습지 복원을 계획 중인 염전부지 55만평을 매입해 향후 시설 확장성까지 갖고 있다. 특히 도보로 5km까지 걸어나가 직접 체험하면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최고의 장점으로 세계유산 보전본부의 최적지라 평가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해수부와 정치권 등을 지속적으로 릴레이 방문하며 전라북도의 장점과 유치당위성을 요청해 왔다.

김해시민 14.2% "환경분야, 가장 중요"

김해시 예산 편성 설문조사

김해시민들은 김해시 예산 편성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환경'을 꼽았다.

김해시가 14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지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중점 투자 분야, 재정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등 12개 항목에 대해 질문한 이번 설문조사엔 총 1,37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2023년도 예산 및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환경 분야(14.2%)'라고 답한 시민들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휴식·여가를 위한 녹지공간 확충과 폐기물 감축, 자원순환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시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를 이어 사회복지(12.2%), 교통·물류(11.9%), 보건(11.4%), 산업경제(11.1%), 문화·관광·체육(8.2%), 교육(7.9%), 공공질서 및 안전(7.1%), 국토·지역개발(5.9%) 농업(5.1%), 일반 공공행정(5.0%) 분야 순이었다.

/김해(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경남도지사 관사가 15일부터 개방된다.

/경상남도

경남도지사 관사, 국민 품으로

"도민에 환원" 약속 지킨다

도민 의견 따라 콘텐츠·리모델링 '문화공간 조성' 의견 가장 많아

경남도지사 관사가 15일부터 개방된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 핵심 공약인 '도지사 관사 도민 환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5일부터 현 시설 그대로 우선 개방하고, 추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와 리모델링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팀에서 활동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지난 6월 한달간 수렴한 결과 문화공간 조성

(33%)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의견수렴 결과 도민의 집은 가로수길과 연계한 청년감성 문화공간으로, 도지사 관사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생활 속 다양한 콘텐츠, 생활문화 예술공간으로, 주변 야산은 둘레길 및 숲속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단계별로 추진한다.

관사 개방을 기념하여 9월 중 청년과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청년미술작가 초대전을 개최하며, 이후에도 웹툰 페스티벌과 뮤지시스 페스티벌 등이 계획되어 있다.

/경남=양수영 기자

'전남 방문의 해' 민간 관광안내소 운영

전남 곳곳에 59개소 개설

전라남도과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 힐링 전남 쉬다가게'라는 민간 관광안내소 운영을 시작했다.

민간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시간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

도록 관광지 인근 카페, 음식점, 숙박 시설 등에 관광 안내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전남 곳곳에 59개 민간관광안내소를 개설, '청정, 힐링 전남 쉬다가게' 현판을 내걸고, 진열대에 관광 안내홍보책자와 지도 등을 비치하기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